



해답 1. 현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기도 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한다. 다윗도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다. 믿음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다.

“대적”은 단순히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압박하고 숨 막히게 만드는 존재를 의미한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모두 자기 편 같았다. 그러나 반역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

또한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는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기에 “지금 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로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현실을 숨기지 말고 토해내야 한다. 시편이 은혜로운 이유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다.

✿ 적용 질문 1

- 1) 나는 힘들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인가요, 아니면 혼자 삭이거나 사람에게 먼저 가는 편인가요?
- 2)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는 말을 들었거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 때 어떻게 이겨냈나요?

해답 2.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

1, 2절에서 다윗은 많은 대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나 3절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방패”는 온몸을 덮는 큰 방패를 의미하기에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방에서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람들은 다윗을 실패자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한다. 절망과 죄책감 속에서 고개 숙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네 머리를 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적용 질문 2

- 1)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반대로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해답 3.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야 한다.

(5~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 천만 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잤다고 한다. 그 밤에는 압살롬과 그의 군대의 기습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잠들고 다시 일어났다고 한다. 이는 변하지 환경 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고백한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다. 환경이 바뀐 후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잘 믿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 말씀하신다.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다윗은 왕좌도 잃고, 아들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숨김없이 토해내고,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 적용 질문 3

- 1) 다윗은 도망자 신세임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거나 믿음을 고백했던 경험이 있나요?
- 2)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